

차빛 오갈피나무 등은 식용.약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나무

한약재의 원천은 나무다. 약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를 우리 주변에 심어두면 요긴하게 유용할 수 있다.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나무를 찾아본다.

▲차빛 오갈피나무=두릅나무의 낙엽활엽 관목으로 주로 산중턱에서 자란다. 높이 2~3m에 달하며 짧은 가지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손바닥 모양을 하고 있다. 작은 잎은 3~5개로 좁은 타원형 또는 좁고 긴 타원형이다. 잎

밑이 점점 뾰족하고 끝은 볼록 내민 형상이며 뒷면 주맥에 갈색털이 나 있다. 꽃은 8월에 피며 꽃자루가 짧다.

▲차즈기=꿀풀과의 1년초로 약명으로는 소엽(蘇葉)이라고 표현한다. 줄기는 사각형이고 들깨와 비슷하지만 잎이 자줏빛이며 향기가 있다. 꽃은 8~9월에 핀다. 한방에서는 잎을 소엽, 종자를 자소자라고 하여 발한·진해·건위·이뇨·진정 및 진통제로 사용한다. 소엽에 들어있는 페릴 알데하이드는 설

탕보다 2천배 강하므로 담배·장·치약 등의 감미료로도 사용한다.

▲차풀(茶一)=콩과의 1년초이다. 냇가 근처의 양지에서 자란다. 높이 30~60cm이고 줄기에 꼬부라진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 있고 작은 잎은 선상 타원형으로 길이 8~12mm, 너비 2~3mm 크기이다. 열매는 평평한 타원형이고 털이 있으며 그 길이는 3~4cm이다. 종자는 윤기가 나고 검다. 잎이 달린 줄기를 말려서 차로 이용하고 종자는 볶아서 같이 사용하며 모두 이뇨제로서 효능이 있다.

▲참나리=백합과의 다년초이다. 산야에서 자라며 높이는 1~2m. 흑자색이 돌고 질은 흑자색 점이 있으며 어릴 때는 흰털로 덮인다. 비늘줄기는 둥글고 지름이 약 5~8

cm이며 줄기밑에서 뿌리가 돋는다. 대개 관상용으로 심으며 재배종은 3종류로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비늘줄기를 영양 및 강장제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진해제로 사용하고 있다.

▲참느릅나무=느릅나무과의 낙엽교목이다. 높이 10m에 달하고 작은가지에 털이 있다. 나무껍질은 조각으로 갈라져서 떨어진다. 잎은 어긋나고 두꺼우며 타원형 형태를 하고 있다. 꽃은 9월에 피고 잡성이며 황갈색이다. 보통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며 완화제, 이뇨제로 쓰인다. 열매가 거의 둥근 것은 둥근 참나무느릅, 잎이 좁은 피침형은 좁은 참나무느릅이라고 한다.

▲참빛나무=장미과의 낙엽활엽 교목이다. 줄기는 성장

이 빠르며 큰 나무는 지름 70cm, 높이는 15m정도다. 잎은 난형으로 길이 5~8cm, 너비 2.5~4cm로 끝이 뾰족하며 톱니가 있다. 꽃은 담홍색 또는 홍색을 띤 백색으로 4월에 핀다. 열매는 핵과로 6월에 검게 익으며 생식한다. 이 나무의 나무껍질을 약용으로 쓴다.

▲참아리=미나리 아재비과의 덩굴성 목본식물로 산록이하에서 흔히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이 5m 내외로 뻗어나가고 잎은 마주나며 3~7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우상복엽이다. 꽃은 7~9월에 백색으로 피고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에서는 위령선(威靈仙)이라고 불리며 진통 및 이뇨제로 신경통과 류머티스에 주로 사용된다.

홍화재배때 가뭄에 대비한 물관리기술이 확립됐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은 홍화를 재배할 때 오랫동안 이어지는 가뭄에 대비해 초기·중기·후기로 나눈 뒤 단계별로 알맞은 양의 물을 공급하면 생장이 수확때까지 이어져 고품질 홍화를 안정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화 가뭄대비 물 관리기술 확립

의성약초시험장

방법은 생육단계를 초기 3월20일~4월18일, 중기 4월29일~5월28일, 후기 6월8~7월7일로 각각 구분한 뒤 비가 마지막 은 날로부터 계산해 초기에는 23일, 중기 10일, 후기 9일쯤에 10a(300평)당 6,800 l의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의성약초시험장에 따르면 이같이 물을 공급해 홍화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10a당 353kg이 생산됐다. 이는 생육단계에서 가뭄피해를 받았을 때의 222kg보다 수량이 37%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수분이 알맞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식물체의 영양생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생식생장으로 원활하게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구기자 뿌리 박피기 개발

청양시험장-농기계화연구소 공동

한약재뿐만 아니라 식품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진 지골피를 제조하는 구기자 뿌리 박피기가 개발돼 지골피 생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충남 청양구기자시험장은 농업기계화연구소와 함께 롤러 회전차 및 입착력을 이용한 마찰식 박피기계를 개발, 구기자시험장에서 연시회를 가졌다.

구기자 뿌리 박피기는 큰 동치를 제거해 적절한 크기로 자르는 절단장치와 운반기(호퍼)에 의한 공급장치 및 회전롤러가 압착하고 회전차를 이용해 껍질을 벗기는 박피장치

등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박피기를 이용하면 하루에 한 명이 3~4kg밖에 벗기지 못하는 손작업에 비해 10~14배인 50kg의 지골피를 생산할 수 있어 인력절감에 따른 생산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청양구기자시험장 조임식 재배팀장은 "지골피가 식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격은 박피기 200만원, 절단장치 100만원, 운반장치 50만원 등이다.

참당귀 노지육묘 두둑

30cm로 높이면 관행비 20% 증수

참당귀를 노지 육묘할 때 알맞은 두둑의 높이가 구명됐다.

경북도농업기술원 봉화고령지약초시험장은 참당귀를 노지에서 육묘할 때 두둑의 높이를 30cm로 만드는 것이 단위면적당 규격 모종의 수량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두둑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10a(300평)당 2,000kg의 퇴비를 밭에 뿌려준 뒤 관리를 이용해 두둑의 높이가 30cm가 되도록 골을 내주는 것이다. 파종은 6월 중순께 영하 5°C에서 보관한 참당귀 종자를 휴면타파를 위해 흐르는 물에 3~5일간 담가둔 후 1㎡당 50g정도를 흩어뿌려준다.

약초시험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만추당귀>를 육묘한 결과, 이듬해 뿌리 굵기가 0.31~0.7mm 되는 규격모종의 수량이 1㎡당 1,399포기로 두둑의 높이를 10cm로 하는 관행 재배때의 1,164포기보다 20%증가했다. 최돈우 봉화고령지약초시험장 농업연구사는 "참당귀 육묘시 초기에 물이 부족해 건조해지면 종자가 발아하지 않고 다시 휴면상태로 돌아가 싹이 나지 않는다"며 "파종할 때 흙은 얇게 덮어주고 발아할 때까지는 벗짚으로 덮어주는 방법으로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전화:054-673-8064).

'가시오갈피' 고소득 작물 육성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가시오갈피가 강원도내 고랭지와 산간지역에서 올해 집중 육성된다.

평창군은 독특한 향과 함께 보양 및 건강식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시오갈피를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4억2000만원을 투자, 5년동안 진부면과 용평면 지역 11만1000평에 묘목밭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가시오갈피 재배경험이 있는 농민들로 구성된 작목반을 조직, 가시오갈피를 이용한 판매사업과 가공공장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가시오갈피 단지가 조성될 경우 한약재와 청량음료, 건강식품등을 개

발해 연간 7억여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제군도 부가가치가 높은 특색있는 산림농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시오갈피를 집중 재배기로 하고 올해 1500만원을 들여 0.5ha에 5000주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가시오갈피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높아 인제군 관내에서만 연간 2000kg이 생산돼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가시오갈피의 국내 수요는 한약재와 음료 등 연간 60t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집중 육성할 경우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라지 절화 단경기 생산 6월중순 정식후 순지르기 지베렐린 처리

꽃도라지의 단경기 생산 재배법이 확립됐다.

충북도농업기술원은 꽃도라지를 재배할 때 순지르기한 뒤 성장조절제인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단경기에 품질 좋은 절화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법은 먼저 6월 중순께 꽃도라지 모종을 이주시키고 난

뒤 20일 가량 지나 순지르기한다. 이후 2·3주째 20ppm으로 희석한 지베렐린을 각각 한 차례씩 식물체의 잎에 골고루 뿌려준다.

도농업기술원이 증생종인 <미키바이컬러퍼플>꽃도라지를 이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결과, 순지르기하지 않았을 때 보다 8일 늦은 8월 중순께 꽃이 피었다.

또 10a(300평)당 수량도 3,113속으로 순지르기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하면서도 절화 품질이 향상됐다. (문의 처:043-219-2656)